

#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4  
Apr. 2022  
Vol.10 No.04

통권 92호

- 고난주간 / 부활주일
- OC 채플 / 목장 소식
- 코람데오 / EM / ICY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Happy  
Easter

유월절 어린양으로 희생되셨던 예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가 경건하면서도 엄숙하게 드려지고 있다. 3년만에 양쪽채플이 반갑게 만나서 연합예배로 드렸으며, 성가대의 찬양까지 완벽함을 갖춘 초실절 예배였다.  
(사진: 박민 집사)

##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철호 안수집사 · 오병순 권사

“엄마 사랑해”  
“고맙다 막내야  
오서방도...”

"엄마" 라는 한마디는 즉시 동심을 흔들어 깨우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한다면 "어머니" 라는 단어는 거기에 더하여 "연민"이라는 감성까지 자극하고 금방 코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고이게 하는 오묘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

고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뵈 수 없는 기성세대 어른일수록 더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그 시대에 부모님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한국전쟁) 라는 불운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살아오셨



어머니 정환주 권사(왼쪽부터), 오철호 안수집사, 오병순 권사 가족

고 산업화와 자동화된 기계 문명의 유익도 많이 누리지 못하셨던 분들이셨기에 더더욱 마음이 찡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

(11면에 계속) | 김선희 기자 |

■ 커뮤니티 섬김

## 경찰·소방관 70여명 밸리채플 초청 한식 대접



커뮤니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가 지난 4월 18, 19일 양일간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데본셔경찰서 데미안 와이머 서장을 비롯 경찰관 60여명, 소방대원 10여명 등 총 70여명의 참석자들은 밸리채플에서 준비한 갈비와 한식을 들며 한인교회가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LA시 12지역 존 이(왼쪽 사진)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주안에놀러와' 때도 순찰경관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교회와 지역 치안기관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 조용대 기자 |

■ 임마누엘 성가대

## 3년만에 감격의 찬양 '승리하신 주' 께 영광!

지난 3월 두 번째 주일(3월 13일) 아침 임마누엘 성가대(대장 조용대장로) 단원들은, 팬데믹 상황을 헤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미룰 수 없다는 교회의 부름에 부응하여, 삼삼오오 성가대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9시부터 시작되는 성가 연습은 연습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열정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져 갔습니다.

드디어 매주 아침 모여 찬양을 준비한 지 6주가 지난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새벽 6시 50분, 두 번의 예배 시간(1부 8시, 2부 11시)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찬양을 준비해 본지가 얼마 만인지, 몇몇 대원은 1시간이 넘는 먼 거리에서 새벽잠을 깨우고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초대형 스크린으로 새단장한 밸리채플 예배당에서 감격의 찬양을, 더욱이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신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42명의 임마누엘 성가대원 모두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악보도 내려놓고 더욱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성가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프라노 파트를 섬기는 스틸라 손 권사는 밝게 웃으면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가대원의 마음이고 주안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환경을 바꿔 주시어, 매주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모든 성가대원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성도님들은 총무 윤성문 안수집사 (818) 458-6728 에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 이광영 기자 |

부활주일 연합예배

#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감사와 기쁨



각 채플에 속한 교인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평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였다. 특별히 금년 부활절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웠다고 생각된다. 더하여 요즘 우리 교회에 몇 가지 희망적인 좋은 현상을 느꼈고 이를 교우님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는 「초실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제목의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기쁨이다”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림자인 초실절이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가 됨을 깨달아 부활절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알게됨을 감사하게 되었다

둘째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Covid 19 이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 주안예교회 교인들이 기도 생활에 열



심을 내고 말씀에 감동함을 알게 되었다. 고난주간 특새에 교회당에 출석하여 기도드리는 교우들 외에 150 가정 이상이 가정에서 Zoom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최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미국 동부 지역과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부흥성회와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Covid 19으로 침체된 여러 교회

들과 교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신학생들에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최혁 목사님을 귀하게 쓰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안예교회 전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린다.

넷째 EM 청년들 코람데오 청년들, 영커플들, ICY 학생들이 활발한 활동과 예배참여로 교회가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OC채플의 EM청년 5명이 빨리 채플에서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 매주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오가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주신 선물 중 허브 씨앗을 심은 화분을 준비한 ICY학생들과 EM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소비하는 물품보다 생명을 가진 선물을 선택한 아이디어를 많이 칭찬하고 싶고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정성들여 키울 때마다 교인들이 기쁨을 맛보고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사하리라 여겨진다. | 나형철 기자 |



■ 코람데오 '주안에만남'

## 말씀의 공동체로 이끄신 하나님 섭리 놀라워

지난 4월 3일, 벨리채플에서 코람데오 공동체의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코람데오 청년들의 주안에만남은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넘쳐나며, 젊음이 물결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었다. 데코레이션도 곳곳에 나뭇잎으로 장식하여 젊음의 공동체다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30여명의 코람데오 청년들을 위하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서빙으로 시작된 주안에만남 안에서 오늘의 섬김을 줬을 시절부터 잘 보고 배움으로써 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맛있는 만찬을 즐기며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온방을 따듯이 감싸주었다. 코람데오 청년부는 담당 오승헌 목사님과 이미란 전도사님, 국장으로는 양태섭 안수집사



와 양영 권사 부부가 수고하고 있다. 코람데오 청년들은 먹는 것도 열심히... 게임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더불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첫 번째 게임으로 교회라면 생각나는 단어 게임을 하였다. 예수, 찬양, 십자가, 목사님 등의 대답이 주를 이루었지만 어느 남자 형제는 자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하여 웃음바다가 되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는 한 사람도 답변이 없어 빵점이 나왔다. 드림 목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또 한 번 웃음꽃이 피었다.

재미있는 그룹게임을 세 가지 한 후에 목사님께서 주안에교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셨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있는 소개 시간이 되었다. 몬테벨로에서 벨리까지 오는 콰키 자매는 제니스 허 권사님 댁에서 틀어놓았던 최혁 목

사님의 CD를 듣고 주안에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배 형제는 한국에서부터 알던 절친누나가 주안에교회를 소개했고 현재는 주일새벽 6시 30분부터 찬양팀에서 기타반주로 섬기고 있다. 백기주 자매는 조선희 전도사의 인도로 오게 되었으며 노제니 자매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벨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는 곳이 사이프러스라서 멀긴 하지만 무척 행복하다고 한다. 송영민 형제는 누나를 따라 주안에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병욱 형제는 누나와 매형이 다니는 교회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언주 자매는 4년간의 미군복무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였다.

4시간 반 정도 소요된 청년 주안에만남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며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구동성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 임용자 기자 |

■ 목장소식/ 벨리채플 4목장

## 부활절 맞아 즐거운 가족모임

지난 4월 17일 주일에는 주안에교회 4목장과 영커플 2목장이 부활절 주일을 맞아 즐거운 모임을 하였습니다. 목원분들과 같이 점심 준비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Egg Hunting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부활절 모임도 목원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감사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돈까스! 집 뒤뜰에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돈까스와 목원분들께서 다같이 준비한 여러 샐러드, 다과, 음료까지도 너무 완벽한 점심이었습니다. 아이들도 Egg Hunting을 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1살 우리 딸 서야도 언니 오빠들 따라서 아장아장 걸으며 계란을 주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 부활절 주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안에교회 4목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다이 성도 |



■ 코람데오 기도회 & 하이킹

## 새벽을 깨우는 기도모임, 등반로 청소 보람

4월 9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지체들이 밸리채플 청년부실에 모였다. 청년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왔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영성집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키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했다. 물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을 한해 청년부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 또한, "연합"을 주제로 각 목장의 연합, 밸리채플과 오씨채플 청년들의 연합, 리더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가 청년부에 지속되길 간구하였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밸리채플 건너편에 있는 Limekiln Canyon Park에 가서 하이킹 겸 팀별로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가졌다. 쓰레기를 많이 줍는 팀에게 상품을 주는 형식의 게임이었지만, 함께하는 것이 마냥 즐거워 경쟁의식은 까맣게 잊은 채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은 쓰레기가 모어져 있었다. 하이킹을 하고 나니 배가 출출하여

근처 파네라로 이동해 브런치를 먹으며 2차 수다를 떨었다.

매달 모이는 청년부 기도회에 더 많은 코람데오 지체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길 소망한다.

## 땀별 아래 구슬땀... 말끔해진 교회 흐뭇



■ 밸리채플 잡초제거 작업

주안에교회 밸리채플 조경관리국 (국장 이현보 안수집사) 에서는 지난 2~3개월 동안 계속 나뭇가지 치기를 하면서, 4월 16일 토요일에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산불시즌에 대비해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와 잡초를 제거하느라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엄청나게 쌓인 잡초와 나뭇가지를 갈아주는 기계까지 렌트하여 가루를 필요한 곳에 비료처럼 덮어주는 작업까지 깔끔히 끝마쳤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까지 협력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가 붙은 나뭇단을 나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거뜬히 힘든 일도 해냈다. 특히 지난 11월 새가족으로 등록한 윤상숙 권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신 데 대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현보 국장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신 여러 봉사자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서로 즐거운 대화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 임용자 기자 |



■ Good Friday Service

*"This year was different as I put into practice the value of servitude"*



All my life, Good Friday has always been a time of remembrance and refinement. A time where where my heart and soul is primarily set on remembering the heart of Jesus Christ and the impact of his sacrifice. However, this year was different as it marked the first time I put into practice the value of servitude. As a leader in ICY, me and the others leaders of the congregation had the opportunity in showing our love for the students through the washing of their feet, the very practice that Jesus had done for his disciples out of humility and tender care. When I first heard of it, I didn't know how to make of it. I've been in the position before to receive, where my feet have been washed, but never

in the position to give. However, as the night went on, through the praise/sermon as well as getting my feet washed by my leader, the Holy Spirit definitely set my heart to showing the students how precious they truly are. To show them that we are here to serve, we are here to care, and most of all, to demonstrate the love Jesus showed for us so that they can do the same to others. Honestly, it's very strange how impactful such an action can be, both for the giver and receiver. As I was on the side of receiving, I can feel the warmth and care that one can't feel from a hug or letter. It was a type of warmth that lets you know that you truly are cared for and one that expresses the heart of the

giver in such a meaningful and powerful way. As I was on the side of giving, for the first time, I felt nothing else but to focus on doing the same towards those I wash. To give them warmth, to extend the heart Jesus has shown me towards them. One by one, praying and caring for each and every soul, was so precious and so refining for my own heart as well. It strengthened my conviction in serving the community and opened up my heart to understanding more about Jesus' love towards us. All in all, it was a beautiful night, with a room filled with uniting hearts and people moved through the Holy Spirit, all thanks to the heart and love that Jesus Christ had exemplified for us. | Josh Kim |

■ Easter Seedlings

ICCC EM and ICY joined hands in sponsoring and gifting adorable, Easter-themed miniature pots of seedlings on Resurrection Lord's Day. The seeds inside the cute, pastel pots, nearly 500 in fact, is a reminder of the seed of righteousness and peace that has been sown in us through our Risen Lord.

"And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 James 3:18



EM April Fellowship

Encounter and Fellowship with Missionaries Paul And Sarah Kim

Missionary Paul Kim visited ICCC EM as a guest speaker and shared his history and calling to the mission field of Thailand. His convicting message made me praise God in how consistently He loves His church and the EM ministry by sending someone from a far off country to share the Word of God with us.

After service, Pastor Paul and his wife Sarah were gracious to stay and fellowship with us for a time of question and answer. He answered questions of his upbringing and how they met and the perspective from Sarah as a co-laborer in Christ while home schooling their son and daughter. We were cut to the heart when we heard of how much suffering they had endured through COVID. I could only repent as they shared their story of how they were left to rely



on God when all their funds had dried up. We ended in prayer for Pastor Paul and Sarah lifting our hands asking our Lord to pour out His grace and mercy to His servants who have surrendered all

for the work of His Kingdom. We pray our Lord will continue to guide Pastor Paul and Sarah and provide for all their needs for the work of His Gospel. Amen.

| Tom Park |

목원들 한마디 '우리 19목장은...'

‘섬김’ ‘웃음’ ‘따뜻’ ‘Together’ ‘삼겹줄’ ‘짱’

우리 19목장(목자 알렉스 함, 고한선 집사) 은, 목자님 부부가 솔선수범으로 삶을 나누는 아낌없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 목장, 옆에서 서포트 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장소를 무한 제공해 주는 목원들, 약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멤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목장. 나들이 가자고 하면 전 가족 참여하는 놀기 좋아하는 목장.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주안에 교회 19목장입니다. (류명수 기자)

저희 19목장은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화기애애하며 솔직 담백 토크의 매력 있는 그 만남 자체로 한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목장입니다. (데이빗 김 집사)

우리 19 목장은 제가 주안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뽕뽕 뭉쳐있는 목장입니다. (김혜순 권사)

저희 19목장은, 서로 사랑도, 아픔도 나누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목장입니다. (이주이 집사)

Always full of joy in seeing one another. Yet 7-days apart seems too much like no other. Live or Zoom adds to our



laughters when we're together. So off to church on Fridays, Saturdays, sometimes even Wednesdays. Just to be with more of each other. Sharing, studying, and eating as we uncover and discover. We at 19 목장, young and old have our places here together forever. Thanks to You, our Heavenly Father, we will sever never. (이카일 집사)

우리 19목장은 함께 삶과 믿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보듬으며 믿음의 삼겹줄로 묶인 따뜻하고 풍성한 목장입니다. (이현영 집사)

우리 19목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목원들이 모여 끈끈한 단결력을 자랑하며 두 권사님을 필두로 밑으로는 ICY & 세 살배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25명이 모여 이뤄진 주안에 교회 최고! 짱! 목장 임니당~(고한선 집사)

우리 19 목장에 head is in the clouds, feet are on the ground and the heart is with Christ! We are the purple in the rain and God looks upon us to say "Oh my, my...". We are not here to partake, we are here to take over. (알렉스 함 집사)

■ 권사회·봉사국 섬김

## ‘한지붕 3교회’ 가족을 위한 부활절 오찬 준비

4월 16일 OC 채플의 권사회와 봉사국은 시간에 맞춰 부엌으로 모였다. 미국인 교회와 한인 교회 교인들을 부활절 점심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시장 본 것을 풀기 전에 봉사국장이 준비해온 저녁을 먼저 먹었다. 김치찌개 하나에 따듯한 밥 한 그릇이 어찌 그리 맛있던지 감사함으로 먹으며 오랜만에 봉사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한쪽에서는 테이블 셋업을 하고 꽃꽂이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물소리, 웃음소리.

야채를 씻고, 썰고, 잡채, 사라다, 오이무침, 갈비구이, 커피와 보리차. 구색 갖춰 요리할 준비를 끝내고, 부활절 아침에 부엌에서 만나 음식을 만들고 벨리 교회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요리가 준비되고,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다. 이제 오이무침을 하고, 불갈비를 책임지고 하실 김현권 목사님께 부엌을 부탁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렀다.

요리할 때는 요리사. 예배 참석할 때



는 예배자. 부활절 옷을 바꿔 입고, 화장을 고치며,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입었던 증인인 여인들이 떠올랐다. 권사님들의 수고도 주님한테 기억된 바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부엌을 나섰다.

잘 익은 군고구마를 아침밥으로 나눠 들고 교회 버스로, 자기 차로 형편에 맞게 벨리를 향했다. 이 길을 매주 달리는 교역자들의 수고와 시간을 맞추려는 안타까움을 나누며 부활절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 이예스더 기자 |

■ 드림목장 피크닉

## 봄별 아래 산책로 · 꽃길 걸으며 이야기 꽃피워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 예방 등 제약으로 인해 여행이나 피크닉을 하기 힘들었던 OC 채플 드림목장 회원들이 근처 공원으로 지난 4월 22일, 1일 피크닉을 다녀왔다.

부에나팍에 위치한 Ralph B. Clark Park 공원인데 105 에이커 넓이에 중앙에 호수가 있고 주위로 골프장 테니스코트, 야구장 등 여러 스포츠 시설이 있고 안전한 산책로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명의 참가자들이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오승현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 담소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고 함께 산책을 즐겼다. 40분 정도 걸으며 노랗게 핀 유채꽃들과 이름 모를 식물들을 감상하며 캠프로 돌아와 간식을 들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 공원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고대 고래 화석과 사자와 빙하기 시대 코끼리 화석이 전시중인데 모두 완전한 형태가 그대로 전시 중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보낸 하루가 오래 기억될 것이다.

| 나형철 기자 |

■ 미디어국/ 조윤이 성도

##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 늘 설레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빌3:3)"

주안에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과 실천으로 할례의 영적 의미를 몸소 보여주는 봉사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미디어 팀에서 자막과 카메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봉사를 묵묵히 소화해 내는 조윤이 성도도 그중 한 사람이다.

조윤이 성도는 5년 전, 20년지기 친구의 인도를 따라 처음 주안에교회 코람데오(한어청년부)로 출석하게 되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중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다른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맡은 몫을 감당하고 있다. 목회자였던 아



버지가 돌아가신 후, 투병 중인 어머니를 8년째 보살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형제의 모습에 진실함이 묻어난다.

미디어 기기를 다루는 일이라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수가 있더라도 성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라는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는 조윤이 성도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황성남 기자 |

■ 목장 연합 피크닉

## 4개 목장 가족들 한자리 함께 뛰며 웃음꽃

4월 3일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화창함이 가득한, 봄을 뽐내는 주일이였다. 2부 예배를 마친 벨리채플의 4개 목장 연합은, 2목장인 드림목장을 선두로 해서 7목장과 12목장 그리고 26목장에 속한 40여 명의 목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벨리 채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O'Melveny Park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함께 소속된 목장이나 사역국의 일원이 아니면 서먹하게 지내게 되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려는 의도로 마련된 야유회로 친목회 같은 모임이었다.

모두가 편안한 차림으로 돗자리나 야외용 의자를 준비해 와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미리 오더해 두었던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만 익히고 있던 분들과 대화도 나누었고, 개인적으로 간식을 챙겨오셔서 나누어주시는 맛갈



스러운 간식도 맛보는 사이에 점점 분위기는 서먹함을 벗어나고 있었다.

특히 드림목장의 권사님들께서는 집에서 손수 만드신 한과나 장아찌, 고구마 등을 준비해오셔서 가족을 돌보시는 따뜻함으로 모두를 감동시키기도 하셨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었고 드림목

장의 어르신들은 얼마 만에 짧게나마 공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른다며 흥에 겨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셨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뜨는 뒷모습에서는 석양에 반사된 아쉬움과 함께, 또 다음을 기약하는 기다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나의 이야기/ 전호선 장로

## “인생의 후반전, 그러나 하루하루 설렘으로 연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식어져 갔던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내게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은퇴한 후 내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레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준비한다. 이제껏 내 삶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불안한 마음은 없다. 지난 세월을 통해 이 작은 믿음이라도 지닐수 있도록 도와주신 믿음의 벗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내게는 지난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 살아온 세월에 비해 살아갈 세월이 적은 것을 의식해서일까?

어릴 적 과자나 사탕을 먹으며 그것들이 줄어들 때, 남아 있는 과자나 사탕을 세어보며 먹는 심정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아깝고, 다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 일 것이다. 아니면 방학이 끝나가는 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마음대로 놀며 지내다 보니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개학은 코앞에 닥친 기분이다. 개학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실 텐데...

얼마 전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며 이른 아침의 보름달을 보게 되었다. 쳐다본 그 보름달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둥글었다. 그런데 그 달을 쳐다보는 내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고 찌그러지는 것만 같다. 달처럼 둥글게 살아가고 싶고, 좋은 인연들을 맺어가며 살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지만, 마음만 앞설 뿐이다. 그렇지만 나의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감히 고백한다.

그 당시는 우연이었고, 운이 좋았고, 내가 잘난 탓이었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의 참아주심이었다. 한 번이 내게 레오 톨스토이의 신앙론 서문을 보내주었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이렇게 적었다. “난 이 세상에 오십오 년 동안 살아왔다. 아동기의 십오 년을 제외한다면 난 지난 삼십오 년 동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허무주의자, 즉 겨울의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것은 일



반적인 사회주의나 혁명가로서의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여라는 의미에서 허무주의자로 살아온 것이다. 오 년 전 난 예수와 만났다. 내 생활은 변화되었다. 선악이 그 위치를 바꾸고 만 것이다. 오십 년 만에 난 내 삶에 봄이 찾아온 것을 알았다.” 나 역시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기에, 그리고 내게도 봄이 왔기에 감히 그의 말을 옮겨 보았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아마 나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뛰는 사람일 것이다. “거울 앞에 서면 늙어가는 세월이 씩씩히 웃고 있지만, 마음속의 거울은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이 있다...” 나 역시 가슴 두근

거리는 설렘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고 있다. 이 설렘은,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설렘이다. 그렇다고 하루의 삶이 흥분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아침이 기다려지고 밤이 되어 이불을 덮으며 내게 밀려오는 감사함이 좋다. 한국에 있는 내 동창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 한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의견들이 많아져 가기에(?) 정해진 원칙인 것 같다. “빠 빠 따”의 원칙이다. 잊지 말라고 된소리로 만든 것 같다. 설명을 하자면 모임은 빠지지 말고, 모임에 나와서는 빠지지 말고,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지지 말자. 그런 뜻의 “빠 빠 따”이다.

“모임”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떨까?



■ 제2드림목장

밸리채플 제2드림목장(목자 이규환 장로, 유연화 권사) 목원들이 4월 23일 전호선 장로(전미영 권사) 댁에서 목장모임 후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 요게벳 사역/ 김연실 집사(밸리)

## 믿음은 순종... 아기들 울음소리 트라우마도 말씀이

올해 교회 표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여기서 말한 이웃 중에는 교회 공동체도 속한다고 하였고 거기에 따른 봉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섬겨왔던 봉사를 (성가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들은 후 제가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들은 설교로 인해 마음의 부담감만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보 안내문에 '요게벳'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으시는 광고를 보았지만, 그것은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역이라고 생각되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부담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요게벳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지를 물으셔서 그 앞에서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얼렁뚱땅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믿음' 은 '순종' 이라고 배웠는데 권면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은 그 자리에서 했지만, 그 뒤로 한 주간은 심한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되면서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기들 울음소리에 민감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큰딸 5살/작은 쌍둥이 딸 1살) 남편과 사별하고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면서 아기 울음소리와 다른 시끄러운 소음들이 제게는 너무나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제가 과연 아기들을 잘 돌볼 수가 있을까? 하기도 전부터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했으니 주위 분들에게 제 맘이 변하지 않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봉사 첫날 제 눈에는 모든 아기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간혹 울기도 하였지만 그 소리가 저를 괴롭게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울음을 달래줄까? 그 생각만 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가까이 아는 지인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한다는 것에! 제 트라우마를 잘 아니까요. 그럼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결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실행"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달라지기로 작정했고 그 출발점이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요게벳'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병순 권사 · 1면서 계속〉 5월 가정의 달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부모님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특별히 복에 근본이라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곤 해서 잘 새겨들었지만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런 중에 여기 "효녀, 효자"라고 표현을 해도 넘치는 표현이 아닌 오히려 많이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부가 있어 소개해 보려 한다.

오철호(안수집사), 오병순(권사) 부부가 바로 그분들이다. 95세 노인이 휠체어로 이동하실 수밖에 없으신데도 그렇게 사모하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를 소원하셔서 작년 후반에 한번 부부

가 모시고 와서 어렵사리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 여러 형제 중 막내딸네 집을 제일 마음 편해하셔서 모시게 됐다고 하지만 그 사위인 오철호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사랑으로의 배려가 없으면 오 권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철호 집사님이 오권사님 보다 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평소에 오철호 집사님은 잘 웃지도 않고 좀 무뎡뎡해 보이시는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섬기면서 같은 공간에 거하시게 한다는 그 사실과 함께 가까이 대해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다. 어찌면,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네 알팍한 믿음에 많은 생각과 반성까지 하게 되는 좋



1960년대말 안양유원지에서 엄마(가운데)와 오병순 권사(왼쪽) 쌍둥이 남동생(오른쪽).

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귀한 부부와 같은 성전 뜰을 밟으며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 음악 칼럼/ 드보르작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 아이들을 먼저 보낸 아픔... 절절한 심경 담아

서른 두 살에 결혼한 드보르작(Antonín Leopold Dvořák, 1841~1904)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음에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힘겹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세 아이를 키우며 근근이 살아가던 그는, 결혼 3년째인 1875년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후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비로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작곡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지며 재능을 온전히 꽃피울 일만 남은 듯 보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세 자녀를 연달아 하늘로 떠나보내는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 불과 2~3년 사이에 아직 젖먹이였던 세 아이를 차례로 잃은 그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는 체코 출신의 시인 아돌프 헤이두크(Adolf Heyduk, 1835~1923)의 시를 가사로 사용하여 작곡되었다. 시의 내용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배운 노래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드보르작이 이 시에 곡을 붙이면서 어린 아이들을 먼



저 떠나보낸 부모의 애절한 심경까지 곡에 녹아들게 되었다.

"늙으신 어머니 내게 이 노래 가르쳐 주실 때에, 두 눈에는 눈물이 곱게 맺혔었네.

이제 내가 어린 딸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려니, 그을린 내 두 뺨 위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네"

작곡하는 동안, 드보르작은 울고 또 울었다. 실의에 빠진 그를 보듬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추억 속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진 그와 함께 울어주었

고, 그를 위로했다.

이 곡은 드보르작이 서른아홉 살 되던 1880년에 작곡되었는데, 슬픔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이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빼어난 곡들이 탄생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이 여실히 드러난 이 시기를, 후대 사람들은 드보르작 가곡 창작의 절정기라고 평가한다. 총 7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 「집시의 노래」 Op.55 중 네 번째 노래인 이 곡은, 일곱 개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하며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되어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언제나 가까이 있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간과하지만, 부재 시에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느끼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황성남 기자 |

■ 코람데오 부활주일 연합모임



4월 17일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마치고, 코람데오 한어청년들은 양태섭/양영 국장님댁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

였다. 국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삼겹살과 반찬들에 리더들이 각자 가져온 야채, 무쌈, 음료, 과일, 디저트가 합쳐지니 아주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빨리채플과 오씨채플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먹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배를 두둑이 채운 후, 소화도 시킬 겸 단체게임을 진행하였다. 몸을 움직이며 실컷 놀다보니 한층 더 서로에게 가까워진 느낌이였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 새가족들과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코람데오 지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감사했다. 부활주일 예배의 감격과 함께 청년부의 연합의 기쁨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김윤영 집사 |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성은, 이애스더,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